금주의 기도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의 지혜를 따라 분별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5년 3월 22일 (토) 제 2009 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자크 엘룰과 온라인 참여의 환상

온라인 전쟁의 스펙터클에 휘둘리지 말자

디지털 시대의 문제를 우려하는 사람들 중 흔히 듣는 충고는 "로그 아웃하라"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참여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사람들은 이에 반박하며 온라인에서도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후자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선별할지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실제 삶"이 아니라는 말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곧 그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는 드라마에 중독되게 됩니다. 새로운 싸움이 매일 촉발되고, 유명 인사들과 그들의 동맹들은 예측 가능하게 부족한 편에 서게 되며, 우리는 그 싸움에 우리 목소리를 더해야 한다는 압박(혹은 흥분)을 느낍니다.

자크 엘룰(1912-94)은 20세기 중반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사회 비평가로, 그의 시대의 어떤 기독교 사상가보다도 기술과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많이 고민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엘룰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의 존재

그의 주요 사회학적 저작과 기독교인이 세상과 어떻게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저술에서, 엘룰은 "피드"에 빠지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엘룰은 현대 미디어 기술이 매일 뉴스 속에서 우리에게 사실과 딜레마의 폭격을 날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 이 생각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대화에 끼고 싶어서, "최신 정보"를 알고 싶어서 그 자리에 뛰어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중요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로그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중요한 발전이나 대화의 흐름을 놓칠 수 없습니다. 뒤처져 무지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룰은 이를 "현재의 것에 대한 광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룰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교류하려는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왕국의 존재로서의 역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주요 신학적 저서를 "현대 세계에서의 존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많은 활동적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공적 질서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엘룰은 그가 어떻게 잘못 해석되었는지를 보았고, 이것이 그가 후속 저서인 『왕국의 잘못된 존재』를 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엘룰은 어떤 시대에는 "정치 참여"와 같은 잘못된 해석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그의 시대 정치에 대한 집착과 오늘날 북미의 일부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조된 드라마

이러한 통찰력은 엘룰의 선전(프로파간다)에 관한 주장을 통해 우리가 알고리즘, 분노를 유도하는 사람들, 전문적인 도발자들에 의해 어떻게 몰고 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엘룰은 선전을 대중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했습니다. 선전자들은 "심리적 지렛대"를 설정하여 특정 상징과 슬로건이 반사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고, 최소한의 생각으로 예측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맞춰 넣을 수 있는 고정된 범주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소한 선택지 안에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합니다.

엘룰은 이 드라마의 대부분이 전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문제들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거나 과도하게 부각됩니다.

〈3면으로 계속〉

학개가 내게 가르쳐준 우선순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못해요. 바빠요!"

이 날카로운 말이 두 살배기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아들은 사랑하는 두플로 블록으로 소방서를 신나게 만들고 있었지만, 내가 몇 번이나 치우라고 했던 기차 선로는 여전히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의 대답은 단순히 불순종한 태도를 드러낸 것만이 아니었다(결국에는 치우긴 했다). 그것은 그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었다—정리는 뒤로 미룬 채 놀이를 먼저 하는 것.

하지만 내가 멈춰 선 이유는 아들의 불순종이나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말이 내 마음속 울림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던 말을 이미 듣고 계셨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책망하시고, 내 하루를 다시 정리하여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이끄셨다.

잘못된 우선순위

학개서 1장을 보면, 성전이 파괴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학 1:2). 대신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 개인적인 성공을 좇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5-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3면으로 계속〉

2면
시론
백승철 목사

4면
푸른초장
진유철 목사

13면
교육칼럼 (NEW)
리디아 전 교수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 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 저 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 LILYMD. COM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2 L.A. CA 90006

시 론

자살공화국 · 벼랑 끝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시인. 문학평론가)

기억의 통로 끝이 흔들리고 있다. '성도 최진실' 이름이 흔들리다가 손바닥 보다 작은 바람에 밀려 촘촘히 사라졌다.

2008년 10월 2일 서초구 잠원동 자택 욕실에서 최진실 배우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 다음 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다. 주름진 기억을 타고 가수 휘성(43. 본명 최휘성)이 2025년 3월 10일 자택에서 숨소리가 사라졌다. 2023년 12월 27일, 영화 '기생충(2019)'에서 주연으로 열연했던 이선균(48세)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4년 11월 12일, 송재림(39세) 배우가 세상과 스스로 이별을 선택했다. 2025년 2월 16일, 영화 '아저씨'에서 아역으로 출연했던 김새론(25세) 젊은 배우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영원히 떠났다. 죽음에 대한 학습효과가 쓰나미로 몰려 오고 있다.

신앙의 길을 가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연예인들도 있다. 영화배우 이은주(2005년), 가수 유니(2007년), 탤런트 정다빈(2007년), 탤런트 안재환(2008년)이다. 목회자의 경우도 자살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밖으로 신앙인과 목회자의 자살이 드러나지 않을 뿐,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성경에도 자살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사울 왕 (삼상 31:4-5)은 전쟁에서 패한 후 자결했으며, 아히도벨(삼하 17:23)은 압살롬의 반란을 도운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 시므리(왕상 16:18)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패배한 후 궁전에 불을 지르고 자결했다. 유다(마 27:5)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목숨을 끊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개신교인 1천 명에게 "지난 2주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응답자의 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한 응답자는 23%였다.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정신 건강이 스스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32.4%는 "교인 가운데 자신의 질환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교회가 해야 할 우선 순위가 돌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9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불행한 자화상 그림이다.

자살공화국 시대를 살고 있다. 사방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널려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통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자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 없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스트레스, 유형무형의 압박, 대인관계문제, 경제적 어려움, 트라우마, 신체적 질병, 약물 알콜 중독,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문제(우울증, 불안장애), 자살할 이유가 세월이 가면 갈 수록 다양성과 함께 덧붙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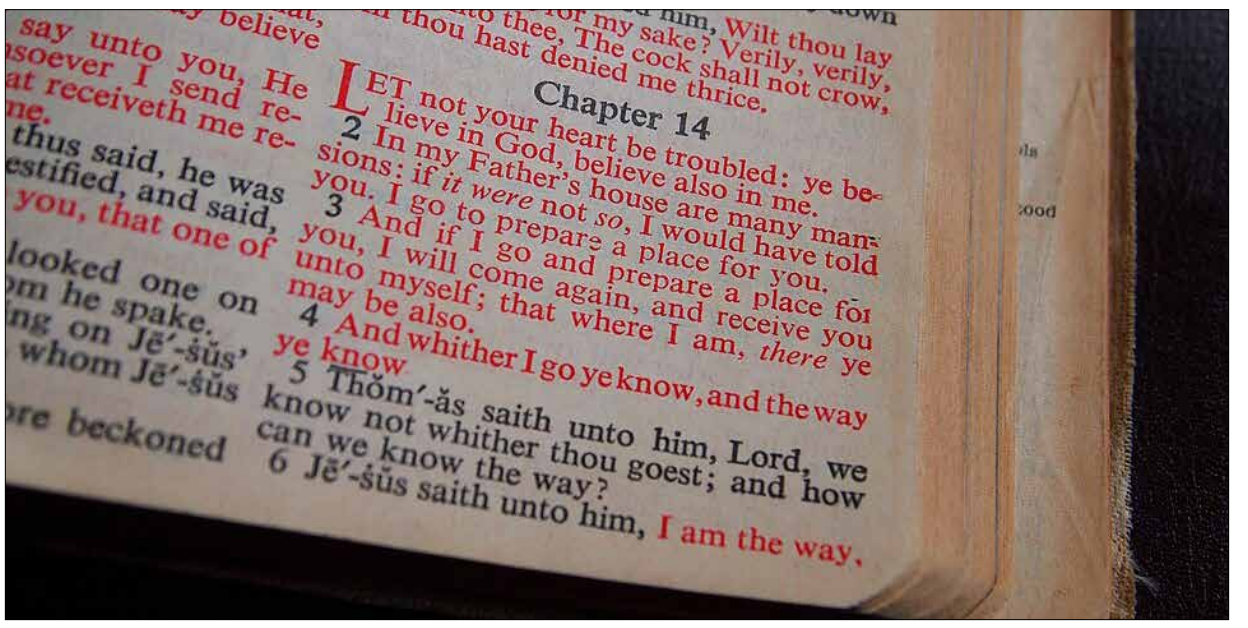
자살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칼에 정의를 내린다.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냉정하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출 20:13, 욥 1:21, 고전 6:19-20). 이와 같은 결론의 당위성은 역설적으로 구원에 대한 결론을 인간이 내리는 우를 범한다.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살의 이유와 원인으로 규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자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보다 묘사를 다루고 있다. 죽음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 곳곳에 거미줄처럼 득하다(렘 29:11, 시 34;18, 마 11;28). 풍성하기에 우리 시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 사망, 음침, 골짜기, 죽음과 바꿀 수 있는 단어의 나열이다. 돌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이다. '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산산히 부서지고 찢겨 먼지처럼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이다. 그래도(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극복하는 노력이 아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의 방법에 도달한다. 그 절망은 곧 죽음의 길이다. 그렇다면 이왕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걸어야 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www.epipodo.com

"붉은 글씨"만 주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복음서를 나머지 신약성경과 분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복음서는 들려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복음서는 그의 말씀과 행적의 기록이다. 하지만 다른 스물세 권은 어떨까? 물론,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서보다 서신서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신약성경의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사도들의 성찰을 만난다.

하지만 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이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친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과 나머지 신약성경 사이에 쐐기를 박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들이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온갖 방식으로 튀어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밖에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그리고 가장 명백하게, 우리가 만나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 인용이다. 사도행전 20:35에 나오는 바울의 연설 등에서 볼 수 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요 20:30-31; 21:25 참조). 이 말씀은 초기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한 내용이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가끔 언급한다(예: 고전 15:3).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언급한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낟알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다(딤전 5:18). 첫 번째 인용문은 신명기 25:4에서 유래했지만, 두 번째 "성경" 인용문은 아마도 누가복음 10:7에서 인용된 예수님의 말씀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누가(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수님을 인용한 바울을 인용한 다음, 바울이 예수님을 인용한 누가를 인용한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한 책이 다른 책을 참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암시 또는 간접적인 참조를 통해서이다. 암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다른 책의 구절과 연결되는 명확하고 알아볼 수 있는 유사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어 하나하나에서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15을 보자.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 구절의 문구를 잠시 생각하면, 산상수훈 속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노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마 5:21-22).

유사점에 주목하자. "형제"를 미워하거나 노하는 것은 "살인"에 비유되며, 이것은 영원한 영적 결과를 초래한다. 요한은 지금 산상수훈 속 예수님의 주장을 재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또한 요한이 자신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요한일서에서 종종 그러하듯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가르친 다양한 주제가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고 있음을 발견한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usany@yahoo.com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1.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3.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4.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젼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PDF로 제출)

1.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젼, 은사등)
2.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5.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3월 29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1.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 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3.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담 임 목 사 청 빙 공 고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미국개혁교단(RCA) 소속으로,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50주년이 된 교회 입니다. 2025년 12월 은퇴 예정인 제 2대 담임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을 이끌어 주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합니다.

A. 자격 요건

1. 미국 개혁 교단(RCA) 또는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단에 소속되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Full-time 목회 경험이 3년 이상 있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5.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B. 제출 서류

1. 이력서 (신학 교육, 목회 경력 포함 및 본인·가족 사진 첨부)
2.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3.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4.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5.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M.Div 포함) 및 목사 안수 증명서)
6. 설교 영상 (최근 1년 내 설교 동영상 3편, 설교 원고 포함)
   - 주일 설교: 한국어 2편 또는 한국어 1편 & 영어 1편
   - 절기 설교: 한국어 1편
7.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직접 제출)

C.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공식 이메일 (church.nydongsan@gmail.com)로만 접수받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5. 서류 접수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한인 동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of Westchester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https://nydongsan.com
church.nydongsan@gmail.com

자크 엘룰과 온라인 참여의 환상

〈1면에서 계속〉

이러한 세력들은 우리를 정치적 범주로 나누고 반응을 촉발하며, 그날의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

엘룰은 지속적으로 흐르는 뉴스와 논쟁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고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순환적인 변화의 사이클은 우리의 주의를 휘둘러 드라마의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교훈을 통합하여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참여자들은 그들의 부족이 제시한 순간적인 스크립트를 따릅니다. 우리는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싸움에 제시된 범주와 길로 가는 것에 갇히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적용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양 떼를 돌보는 자신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가 어떻게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지적으로 발언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학 석사(MDiv)는 만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의무는 "온라인 팔로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은 본래의 소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엘룰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주로 정치 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참여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사고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충성심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잃게 만듭니다. 온라인 부족에 들어가면, 우리의 사고 방식과 언어의 선택이 좁혀지며, 그 집단에 맞춰 의견을 내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론

우리는 "로그 아웃"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의를 더 신중하게 선별하고 소셜 미디어의 일상적인 드라마를 낮춰야 합니다. 온라인 전쟁의 스펙터클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시다. 현실이 점점 게임처럼 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게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y James R. Wood, TGC

학개가 내게 가르쳐준 우선순위

〈1면에서 계속〉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마실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삯을 받으나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돈을 벌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일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잘못된 일에 바쁘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며, 끝없는 즐거움을 쫓고, 모든 것을 다 해내려는 부모가 되려 하며, 심지어 사역의 기회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보다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라

계속해서 7-8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1:7-8)

이 명령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가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이나 "너희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의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중하게 점검하며,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는가?
- 오늘 내가 거절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는가?

그다음에는 "가서 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무를 모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돈을 버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블록 놀이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내가 그에게 부탁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순종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는 프로젝트 마감일이 길을 잃은 동료와 나누는 영적 대화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빨래가 밀려 있다 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물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학개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 그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감사하는 것
-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
-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존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과 그의 목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바쁜 나머지—의도적이든 아니든—영원의 가치를 잊고, 일정에 쫓겨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날, 나는 아들과 함께 앉아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단다." 우리는 함께 기차 선로를 정리한 뒤, 나도 그의 옆에 앉아 두플로 블록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은혜와 소소한 영적 대화가, 내 해야 할 일 목록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 순간들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행하며, 궁극적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by Samantha Decker, TGC

목회단상

내가 약한 그 때가 강함이라

곽덕근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나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은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힘 있게 찬송을 하며, 설교를 들을 때 저절로 은혜가 되는 목소리를 가진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낍니다. 나는 반주가 없으면 음정도 불안하고, 성대가 약하다 보니 조금만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목이 잘 쉽니다. 나는 어렸을 때에는 먹는 것보다 안 먹는 음식이 더 많았을 정도로 편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방 가서 아무 음식이나 맛있게 잘 드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된 말로 "똥 손"입니다. 멀쩡한 것도 내 손에 들어오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많아 교회 안에 고장 난 것을 손수 고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는 카리스마가 있고 추진력이 좋은 목사님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면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천천히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 봐도 이런 약점들을 지닌 내가 어떻게 목회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9-10).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이 많은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나의 약한 것을 하나씩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먼저 식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못 먹는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카리스마도 없고 추진력도 약하지만, 대신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일을 빠르게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분쟁도 없고 실수도 적어지게 됩니다. 나는 비록 '똥 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심성을 주셨고, 동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찬양을 잘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채울 수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항상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설교를 마무리 할 때도 읽고 고치고 생각하고 고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주일 새벽이지만 대신에 나름 짜임새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강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약점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약한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자신의 약함을 바라보며 탄식한다면, 그의 삶 속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비록 약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revkwak@gmail.com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516)520-2004 www.gcnyk.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청년부 예배: 오후 12:0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Tel. (718)762-2525, 5756, www.hy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l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어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 벽 예 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Tel.(718)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917)733-7387, bms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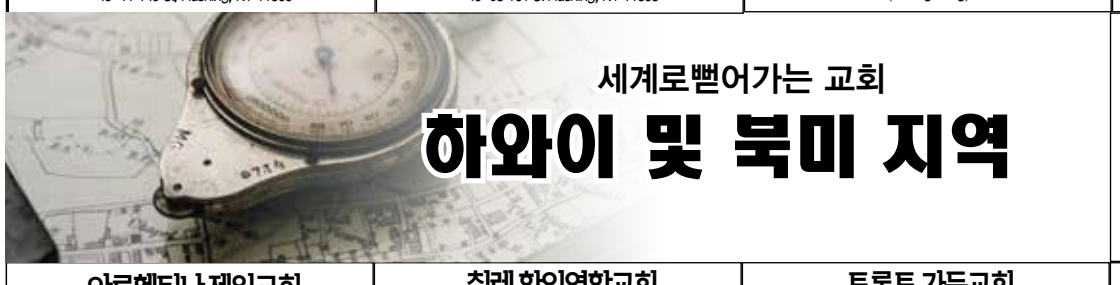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오전6:00
Tel.(845) 359-1458, http://o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6:00
Tel.(718)886-4040,www.kapcq.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6:30(토)
금요충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충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건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장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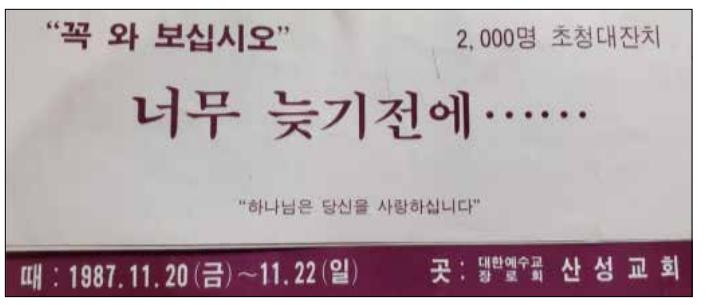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결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때였다. 8년 동안 교육전도사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강도사 1년 동안에 목표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사명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시골목회는 아닙니다. 서울에서 개척교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산층 아파트 지역에서 개척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개척교회 할 만한 장소를 찾는데 1년을 꼬박 투자했다. 우선 그 당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 중산층 아파트를 건설하는가 신문의 아파트 분양 광고들을 모아서 검토했다. 그렇게 찾아낸 지역이 송파지역이었다. 1월 신년 연휴가 끝난 다음날부터 매일 매일 자가용(그 때는 그렇게 불렀다)을 몰고 개척 교회할 장소를 물색하러 출퇴근을 했다. 신축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매일 들렀다. 종교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창하게 써붙인 복덕방은 모두 들러서 신축상가 건물 후보지를 물색했다. 그 한 해 일년 동안의 본업은 오로지 개척 후보지를 물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매일 매일 찾았지만 12월 말일까지 한 건도 손에 잡힌 것이 없이 허무하게 끝났다.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빈 예배당에 아내와 함께 회개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주님의 인도도, 응답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새해가 되면 더 이상 내 뜻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시골도 좋고 섬 지역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전폭을 맡겼다. 새해가 밝았고 년초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김강도사입니다. 누구세요… 나 박윤선 목삽네다. 예!~~~ 목사님 웬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김 강도사님… 몇 가정 부부들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지도해 달라는데 가보갔어요? 예! 예! 가고 말고요… 그 지역이 어딘데요?" 박 목사님 대답을 듣고 난 순간 기절할 뻔했다. "송파라던가!…"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다. 전신이 굳어졌고, 엄청 놀라,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다 결정하고 송파 지역을 꼬박 1년 12달을 매일 찾아다녔는데 손바닥 만 한 구름 한 점도 보지 못했는데… 회개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3일 만에 응답의 소나기가 쏟아졌다. 송파 지역에 사는 모 교회의 고등부 교사 부부들을 준비해 주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시작하여 송파 석촌호수 주변 백제 고분 앞 개인 건물에서 산성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 부부들은 오로지 전도하고, 선교와 구제만 하기로 작정하고 기성 교회에서 나온 부부들이었다. 저들은 매일 철야기도를 하는 열정적인 분들이었다.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열정을 다 바쳤다. 몇 달이 되지 않아 6~70장년들이 금새 회집되었다. 이렇게 개척하여 1년이 지났을 때 2천 명 초청 전도잔치를 기획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1월초부터 일년을 기도로 준비하고 총력을 다했다. 상황실을 만들고 매일 매일 교우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상황판에 기록하면서 준비해 나갔다. 예배실은 2백명 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금요일부터 주일 오후까지 10번의 집회를 계획했다. 그 당시 불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을 간증 강사로 초청했다. TV 탤런트, 유명가수들, 무장공비 출신 김신조 집사, 한국국가 대표 축구선수 이영무 선수… 3~4만 장의 초청장을 아침 저녁 신문에 넣어 집집마다 배부했다. 애드벌룬을 띄웠고… 총력을 다해서 1년을 준비했다. 드디어 정한 날짜에 2천 명 초청 대잔치가 시작되었다. 2천 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1,567명이 초청되어 왔다. 1부 간증을 듣고 그 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도록 격려한 후에 결신 기도로 이어졌다. 이 잔치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선 초청인들이 550명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셨다. 오늘날은 그때와 달리 시대가 변했고, 상황도 달라졌다. 그러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다… 금년에도 새 생명 잔치를 해야 하는데… 매년 만족할만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다.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생명을 구해야지… 결단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였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서재에 꽂힌 오랜 책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당시의 전도 초청장 견본을 보고 감격스러웠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선악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이다

로마서 5장 18-19절

오늘은 믿음의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권위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을 가장 확실한 대조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선악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본문 18a절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와 19a절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는 구절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불순종의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에덴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누리며 권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즉시로 영이 죽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지니까 조금 전까지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던 상대방에게서 허물이 보이면서 서로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에덴동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수고의 땀을 흘려도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영생의 삶을 살 건강이 질병과 사망의 몸이 되어 아무리 운동하고 보약을 먹어도 병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 결국 모든 인생은 자동 지옥의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며 사는 절망적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한테 좋은 것은 선이고 나한테 나쁘거나 싫은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선을 알게 되어도 죽는다는 진리는 납득하기 어려워 실수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선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구제를 더 잘하며 남을 돕는 사회사업도 잘하고, 또 매너 있고 솔선수범하여 선을 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하다 할지라도 그의 선함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란 결국 인간 수준에서 좋은 일, 자기가 보기에 선한 일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수준의 선을 붙잡고 자기 의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 권위를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의 세계를 보아도 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든지, 불량 학생이 많은 나쁜 학교이든지, 희망 없는 단체 등은 다 권위가 깨져 있고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는 '권위와 순종'을 깨기 위해 처음에는 '옳고 그름'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취향'이란 말로 넘어가는데, 취향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동성애도 이런 것입니다. 결말은 가정이나 사회 파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파괴이며 사망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국가나 교회에서도 자기 소견대로 '옳다 그르다' 선악이 우선이 되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사망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 권위에 대한 순종은 생명과 의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b절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와 19b절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도, 사심도, 그리고 죽으심도 그러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순종을 선택함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역사상 최고의 역전승을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백부장 계급의 로마 장교가 찾아와 예수님에게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마태복음 8장 7절)라고 대답하셨는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집에 가실 의향도 있으셨고, 준비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너무 황송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까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나도…"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한 군단에는 군사가 6천 명이 있었습니다. 군단 내에는 군단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백부장이 60명이 있었습니다. 각 백부장의 아래에는 군사가 1백 명씩 있었습니다. 자기 위에는 사령관의 권위가 있었고, 다시 그 위에는 로마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만큼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장교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바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저도 권위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제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즉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제 밑에 있는 군사들이 즉시 제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권위가 주님께 있음을 저는 믿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안에서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성장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성경에서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종, 일꾼'이지만, '타인의 권위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직분을 맡게 할 때는 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믿음이 서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분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이란 면에서만 말하자면, 오랜 기간의 왕조시대 역사와 가부장적 권위의 구조를 가진 한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한 영적 원리인 권위와 순종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반면에 서구인들은 자유 경쟁의 민주주의 사회에 익숙합니다.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선거로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이런 자유 경쟁 체제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권위를 갖는 지도자보다 개인주의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적 권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 믿음의 본질은 선악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받은 것이 당연하게만 여겨지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자기 선택이 많은 시대가 되어 '각자도생'이란 말을 합니다. 내가 선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갈수록 어려워지게 됩니다. 완전하거나 전능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Not I But Christ를 이루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하므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반드시 복을 누리며 최종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온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공화국"을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 명령들 - 선을 넘는 정부의 억압과 불법 명령들 금지 명령!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온 세계안에서 가장 많이 목숨을 내걸고 싸워온 국가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의미는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입니다.

미국역사를 보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God), 성경적 가족관(Family)이 우선순위 될때 비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Republic)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선 순위를 볼수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통제가 우선화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There are ONLY TWO genders"라는 성별 발표가 미국 전역으로, 또한 차세대 삶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에 관련하여 지난 2월,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 주요 2가지 내용을 나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 시민들과 군대, 회사, 교직원들, 심지어 어린 학생에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압적으로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건강" 또는 "신앙" 이슈로 거절했던 시민들을 해고시키거나 벌금을 물게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했던 상황을 파악한 후, 2월 14일 백악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번역/의역입니다.

1. 백악관 발표 공지문 (2/14/2025) -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PROHIBITING COVID-19 VACCINE MANDATES IN SCHOOLS)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학교나 교육기관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모든 교육 서비스 기관, 주정부 교육기관, 지역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 교육 기관들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첫째, 정부의 과잉 개입종속- "PUTTING AN END TO GOVERNMENT OVERREACH":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학생들이 '교육과 의료의 자유'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국인의 교육이 불필요한 정부 명령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19 중증 질환 발병 위험은 매우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해 학부모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를 준수하거나 자녀의 교육적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었다.

자녀 백신 접종은 정부가 아닌 학부모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학부모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이 아닌 정부의 강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약속한 것을 지킨다- "PROMISES MADE, PROMISES KEPT":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군인들을 복직 시켰으며, 급여와 복리후생도 전액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의 권리를 확고하게 옹호하며, 부당한 정치적, 관료적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가족이 자녀의 교육 여정을 형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백악관 발표 공지문 (2/19/2025) - 적법한 집행을 보장한다 "ENSURING LAWFUL ENFORCEMENT"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인 정부의 역할을 위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라는 정부효율성부 규제 완화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째, 이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모든 삶에 연결된 정부의 규제와 집행에 있어 연방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종식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을 회복할 것이다. 각 기관의 관료들은 소속 DOGE 팀장 및 관리예산처(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와 협력하여 관할 대상인 모든 규정이 법률 및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 기관은 집행 재량권을 활용하여 법적 권한을 확장하거나 연방 정부의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집행 조치의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규제와 집행을 제거한다. "ELIMINATING UNLAWFUL REGULATIONS AND ENFORCEMENT" :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규제를 포함한 연방 규정의 축적과 부담스러운 집행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미국인의 자유를 제약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역사적인 1조 7천억 달러($1.7 Trillion)의 비용을 부과해왔다. 이 행정 명령은 과도한 규제와 남용 적인 집행을 중단시키고 되돌리며 (정부의) 책임감 있고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

여기까지 번역/의역입니다.

1조 7천억 달러($1.7 Trillion)의 비용은 사실인가?

2024년 9월 25일에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인 하원 감독 및 책임 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코머와 경제 성장, 에너지 정책 및 규제 문제 소위원회 위원장 팻 팰런(팻 팰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조 7천억 달러가 납세자들에게 부과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연방 규제가 역사적으로 급증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러한 바이든/해리스의 늘어만 가는 관료적 장애물이 결국, 얼마나 파격적으로 미국 서민들의 가정과 중소기업들에게 경제적 피해에 처하게 했는지 자세히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한예로, 바이든 행정부는 3억 시간 이상의 규제 서류 작업 시간을 부과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규정 준수 부담을 안겨주었다'고 기록하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백악관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치인들의 남용적인 집행을 중단시킴으로 "미국경제를 다시 정상적으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되돌리며 정부의 책임감 있고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 할수있는 길이라고 경제 전문가들 역시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감사한 소식들이 넘치지만, 동시에, 지금 현정부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처럼 백악관에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깨어 분별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씰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읽기를 하는데 저는 신약부터 읽어 나가는데 요한1서 5장 17절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요 ?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에서 이희은

죽음에 이르는 죄

A: 오늘의 복음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겠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성령훼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나 (마 12:31) 그 표준도 애매하여 함부로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훼방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사도요한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적그리스도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가르켜 한 말이라고 이순한 목사는 그의 책 공동서신에서 주석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난해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적을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역사한 것이라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 12:31- 32절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성령훼방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1) 제롬 ,크리소스톰, 존 맥아더, 박일민 교수는 성령훼방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만 있을 수 있는 죄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이적으로 기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훼방한 것이다. 존 맥아더는 이 죄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독특한 죄로 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빌리그래함, 루터파 학자들 - 이 성령훼방죄를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 견해를 따른다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다 성령훼방죄를 지은 사람으로 본다.

3) 칼빈, 윌리암 헨드릭슨 - 무지 속에서 범죄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성격을 구분하여 후자를 이 죄로 평가한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선택 사상과 연결되어 구원받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 범죄란 비록 구원의 은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적 은혜를 받고 난 후 의도적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말한다. 칼빈은 이런 자들이 이미 버림받은 자들(유기)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이며, 주로 바리새인들과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신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

4) 루터파, 알미니안 신학자들 - 궁극적 구원교리를 부인하는 루터파의 어느 학자들은 이 성령훼방죄는 중생했지만 중생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을 도중에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5)박윤선 박사 -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누구나 의심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성령님의 일인 것이 증명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대할 뿐아니라 모욕하는 악한 언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여 … 가볍게 남을 정죄하지도 말 것이다. 어느 만큼 하나님을 거슬러 가는 것이 성령님을 훼방함인지 우리는 한정하기 어렵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6) 라보도의 조직신학 책에 의하면 "이것은 첫째, 중생되지 못한 자들이 범하는 죄를 말하며 둘째로 중생되지 못한 자라고 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령님의 증언을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고 악평하고 마귀의 사역으로 돌리는 자들의 특별한 죄이다. 이는 특히 거짓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과 신신학자들이 범하는 죄이다"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루터파의 어떤 학자는 중생한 사람도 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하나 개혁주의신학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기에 이 견해를 반대하는 경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요 5: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 즉 성령훼방죄를 범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39th Anniversary

Midwest University(제임스 송, 총장/설립자)는 1986년 미국 중부 St. Louis에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교육부 (USDE), 대학학력인준 기관인 CHEA와 ABHE의 인준을 받은 미국정규 종합대학교입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평화

봄이 오고 있다. 공기가 달라지기도 전에 만물이 이를 먼저 느낀다. 창조주의 섭리인 까닭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萬物)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 이유다. 이를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나 달력을 보지 않고도 본능 혹은 태생적으로 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식물들은 꽁꽁 얼어있는 땅속에서도 소성(蘇醒)을 준비하고 동물들은 내춘(來春)을 맞을 기지개를 켠다. 자연의 섭리다. 섭리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며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가 사람을 창조하신 섭리였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숨결이나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이 변질된다는 점이다. 창조의 섭리에 의해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면 좋았던 것이 나빠지고 정상이던 것이 비정상으로 변질(變質)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는 자연의 습격을 받는 모든 생물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은 사람이 다스릴 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훼손시킨 것들이 자연의 순환을 방해하므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섭리와 훼손된 자연이 충돌하여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절기마저 바뀌고 있다. 춘하추동에서 춘추가 사라지고 하동만 남게 되면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둘 수 있는 때가 사라지게 된다. 꽃을 피우지 못하고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섭리는 곧 평화와 맞닿아 있다. 에덴동산에는 평화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들은 환경에도 위험에서도 자유했다. 옷은 몸을 지키기 위한 용도다.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몸을 해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그 평화롭고 자유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에덴동산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보던 뱀이 그것을 시기했고 그래서 빼앗고자 했다.

유혹에 넘어간 그들이 빼앗긴 것들은 사람의 본질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두려워 숨은 것은 평화를 빼앗긴 것이고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치부를 가린 것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하나님의 복도 빼앗겼다. 사람은 뱀의 그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자유 그리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까지 다 빼앗긴 것이다.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 모든 것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기에 그 이후부터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도 자유도 사라지고 말았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눅 4:5,6의 말씀이다. 천하만국에 대한 영광과 권위가 제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에게서 빼앗았기에 그 권위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없다는 말이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돌려주시기 위해 죽으시기 6주 전에 시작이 되어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의 기간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며 우리에게 되돌려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평화와 자유와 권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귀에게서 죽음으로 되찾아 주신 것들을 다 소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 것들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도 행사하지도 못하는 듯하다.

묻고 싶다. 기독교에 평화와 권위가 있는가? 교회에 자유가 있는가?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해야 마땅하나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달력에다 사순절의 시작과 끝을 표기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죽음으로 빼앗아 돌려주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평화(平和)가 굽이 없고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의미하는 평화(平靴)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5분 충전에 400㎞ 주행" … BYD 전기차 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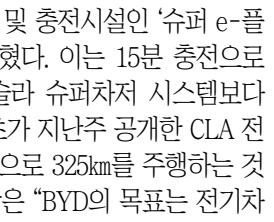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 BYD가 5분만에 충전이 완료되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을 공개했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촨푸 BYD 회장은 전날 중국 선전 본사에서 개최한 발표회에서 5분 충전으로 400㎞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및 충전시설인 '슈퍼 e-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5분 충전으로 275㎞를 주행하는 테슬라 슈퍼차저 시스템보다 빠르고,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주 공개한 CLA 전기차 세단이 10분 충전으로 325㎞를 주행하는 것보다도 앞선다. 왕 회장은 "BYD의 목표는 전기차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만큼 짧게 하는 것"이라며 "충전 속도 면에서 '석유와 전기의 동일한 속도'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 e-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은 다음 달부터 판매된다. BYD는 이 플랫폼을 적용한 '한L' 세단과 '탕L'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각각 최저 27만 위안(5400만원)과 28만 위안(5600만원)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BYD는 슈퍼 e-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양산 승용차에 1000V 고전압과 1000㎾ 충전 전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테슬라 차량에는 400V 시스템이 탑재돼 있으며, 현대차와 포르쉐 등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최대 800V 전압을 제공한다.

악시오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앞지르고 있다"며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기술 분야의 선두에서 후발주자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충전에 많은 시간을 쓰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로 바꿀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공습 재개로 가자지구 휴전 파국 위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연장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 10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휴전 발효 2개월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18일 새벽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를 겨냥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도록 지시했다"며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고 휴전 협상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모두 거부해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가자지구에서 (군은) 전투로 복귀했다"며 "인질들이 귀환하고 전쟁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도 이번 공습에 동의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은 가자지구 공격에 관해 이스라엘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404명이 사망하고 562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은 "사망자 중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난 1월 19일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행동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네타냐후와 극단주의 정부가 휴전 협상을 의도적으로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달 1일 휴전 1단계가 만료된 뒤 휴전 연장을 놓고 최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1단계를 50일 연장하고 남은 인질의 절반을 돌려받은 뒤 영구 종전이 합의되면 나머지 인질을 송환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인질 전원을 석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휴전 2단계로 넘어가자고 주장했다.

CNN은 "이번 공습은 양측의 휴전 연장 협상이 무산됐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가자지구 중부 거점 넷자림 회랑으로 다시 진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휴전 발효 이후 넷자림 회랑에 상주하며 양측의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온 미국 민간 보안업체 인력들이 이날 철수를 시작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가 보도했다.

美, 무역적자국 韓 지목… 비관세 장벽 철폐 촉구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백악관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케빈 해셋(사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꼽은 것이다.

해셋 위원장은 "그들(무역 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말했다. 해셋 위원장은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따라서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81조원)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교역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또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18일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한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솔직히 말해 무역 적자는 줄어들어야 한다. 새 행정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관세와 관련해선 "비관세 장벽이나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을 다 고려해서 계산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새 총리 "트럼프 무례한 말 멈춰야 대화 시작"

유럽을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무례한 발언을 중단해야 양국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17일 영국 런던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예방하고 키어 스타머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무례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과 폭넓은 파트너십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공급하는 F-35 전투기 구매도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우린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양국의 전반적인 상업 및 안보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절대로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카니 총리는 16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카니 총리가 첫 해외 방문지로 유럽을 선택한 것에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는 캐나다가 유럽의 동맹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카니 총리는 엘리제궁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비유럽 국가 중 가장 유럽적"이라며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영국으로 이동한 카니 총리는 버킹엄궁에서 캐나다의 국가원수이기도 한 찰스 3세와 만났다. BBC는 이날 만남에 대해 "찰스 3세가 캐나다에 지지를 보낸 또 하나의 상징적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NYT는 카니 총리의 유럽 방문에 대해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에 다가가 캐나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 자신의 국제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자유의 여신상 반환?…우리 덕에 독일어 안 쓰는 것"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프랑스 한 정치인의 '자유의 여신상 반환' 발언과 관련해 "프랑스인이 지금 독일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오직 미국 덕분"이라며 "그들은 이 위대한 나라(미국)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빗 대변인은 17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이 자유의 여신상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을 받자 "이름 없는 낮은 급의 프랑스 정치인에게 하는 나의 조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는 아직도 독일 치하에서 공용어로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프랑스에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글뤽스만 의원은 프랑스 중도좌파 정당 플라스 뷔블리크 소속이다. 그는 전날 파리에서 열린 한 대중연설에서 "독재자들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하겠다.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 달라"고 말했다. 글뤽스만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업신여긴다"며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파리)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맞서 미국과 함께 싸웠던 프랑스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정을 축복하며 미국에 선물한 조형물이다. 프랑스 국민이 모금운동을 통해 제작했으며 뉴욕의 관문인 리버티섬에 서 있다.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배를 타고 뉴욕에 들어오던 이민자들이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조각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美 원자로 설계 유출시도와 연관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DOE)가 산하 연구소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를 적발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외교부가 밝힌 가운데 에너지부 자체 보고서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 사태의 주원인이 보안 문제로 좁혀지고 있지만 의문점도 남는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지난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보고서는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을 조사해 직원이 수출통제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사례로 소개됐으며,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 당국은 이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개 보고서에 실릴 정도의 경미한 사안으로, 이보다 심각한 한국 연구원들의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이 더 있었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나 정치적 혼란이 아닌 '정보 유출'로 좁혀진 가운데 외교 당국은 지정 철회를 위해 미국 정부와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개혁주의 윤리학(1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I. 신약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윤리적 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부분은 Wayne Grudem의 Christian Ethics 제 8장을 참조했다)

3)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의 다양한 구절들을 새 언약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d)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구원하신다. 특정한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로마서 2:29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했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2:11에서 설명한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규례가 새 언약 아래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갈 2:11, 14). 바울은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한다.

새 언약 아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부정, 혹은 정결된 음식의 규례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거룩성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VI.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

A. 십계명 제 1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3). 히브리 본문에서 "너" (leka/ לְךָ֛)는 단수 대명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 (individually and personally)으로 모두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게" (before me; פָּנַ֣י עַל־; al-panay) 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 얼굴 앞에" (before my face)이며, 70인경 (Septuagint) 에서는 "πρὸ πρόσωπου μου" (to my face)로 번역하였다. 영어 번역에서는 "before me" (ESV) 혹은 "beside me" (NIV) 이다.

이 말씀은 (제 1계명)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선택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임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절대성은 신명기에서도 나와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4-5).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거룩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와 통치자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림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계명이 왜 첫째 계명인가?

1. 제 1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인간의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된다.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인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10).

"내게" (before me)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2. 만약 우리가 제 1 계명을 무시하면, 우리는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살게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간다는 개념이 없다면, 더 많은 죄 가운데 살아나간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롬 3:10-18).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서 이반 카라마조프는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말한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지 안으면 인간은 온갖 종류의 죄악 가운데 살수 밖에 없다.

3.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한다.

4. 제 1 계명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함.

1) 다신교를 제거해야한다. 바울이 다신교 환경속에 있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행 17:16).

바울의 심령은 아테네의 우상들로

인해 격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도의 힌두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이 다신교이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한다.

2) 모든 가짜 종교들: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긴다.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세상의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이다. 하나님만 섬겨야한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젊은이 3명이 금으로 만든 바벨론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여 바벨론 왕을 화나게 하였다.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단 3:12).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단 3:13-30).

사도 바울도 사역중에 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을 목격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전 10:20).

3)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우상이다.

a)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b) 우리가 탐내는 물건들이 우상이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 (골 3:5).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기 보다는 우리 인간이 만족과 기쁨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우상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지 아니하고 육체의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적인 일이다.

d)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 1:10).

e)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한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교만해져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영광을 가로채면 곧 멸망의 길이 된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행 12:21-23).

f)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욱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있다.

g)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는가? 아니라,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

h)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우상이다. 우리의 재능, 능력, 친구들, 좋아하는 운동, 취미, 정치적인 이념들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좋아하면 그것들이 모두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

B. 십계명 제2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4-6).

1. 제 2 계명의 의미

a)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것: "새긴 형상"의 히브리 단어는 פֶּ֫סֶל (pesel) 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돌이나 나무를 "조각하다, 혹은 깎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나무, 돌, 금속을 조각하거나 깍아 만든 숭배의 대상, 즉 우상을 말한다.

제1계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두번째 계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2계명의 의미와 적용이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에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360)907-7271 blescollc@yahoo.com
3906 Country Club NW, Olympia .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초,중,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703)581-9235 www.korean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 213 - 1200 (254) 658 - 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영생을 얻는 방법(How to Gain Eternal Life)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What Must You Believe to Get Eternal Life?)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도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전 3:11)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마 19:16)"라는 질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잘못된 구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떠한 선을 행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어떤 사상가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아침마다 산상수훈 팔복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간디를 가리켜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간디의 정신과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 아침마다 산상수훈 팔복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칭송을 받는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여도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Believe in Jesus to Get Eternal Life)

영생은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공로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삼아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어떤 공을 쌓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 적인 사랑과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라(Find Jesus)

구원을 위한 첫 단계는 예수님의 발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발견하려면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엡 2:8).

종교개혁자 루터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가 법과 대학에 진학하고 얼마 뒤 집에 다니러 갔다 돌아오는 길에 무시무시한 벼락이 그의 바로 옆에 떨어졌지만, 무사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 루터는 성(聖) 안나에게 배우는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갈 것을 맹세합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함이었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온갖 고행과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추구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엄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닌,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특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롬 1:17)."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Deny Yourself)

구원을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자신을 부정하고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알기 원했지만,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영생에 이르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마 19:22-24).

부자 청년에 비하면 베드로가 가진 것은 정말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마 19:27)"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 19:16)"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행위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상속하리라"(마19: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삶과 자신이 가진 재산을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삶에 신실하면서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교육칼럼

리디아 전 교수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원장/임상 심리학 박사)

'코칭' (Coaching)이란 무엇일까?

본지에서는 리디아 전 교수(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원장)의 글을 통해 '코칭'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배울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요즘 '코칭'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코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많은 이들이 '테니스 코치', '골프 코치' 같은 스포츠 코치를 떠올리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코칭을 단순히 스포츠 코칭이나 자기계발 도구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코칭(Coaching)은 전문적인 직업이자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을 받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전문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먼저 상담과 코칭이 어떻게 다르고 컨설턴트나 멘토와 코치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코칭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컨설팅, 멘토링,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

코칭을 이해하려면,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될 수 있는 컨설팅(Consulting), 멘토링(Mentoring), 상담(Therapy)과 코칭(Coaching)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컨설팅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기업 컨설턴트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분석한 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컨설턴트는 고객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반면, 코칭은 답을 주지 않는다.

* 코치는 고객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주는 것이라면, 코칭은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고 싶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 멘토는 자신이 경험한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후배나 배우는 사람에게 조언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사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창업자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선배가 후배에게 커리어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멘토링이다. 멘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하지만, 코치는 경험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답을 찾도록 돕는다. 즉, 멘토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코치는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가요?"라고 묻는다.

상담(Therapy)과 코칭의 차이

코칭은 정신질환과 치료를 다루지 않기에 코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담이 개인의 성장도 다루지만 또한 심리적 치유와 감정적인 회복 등 정신건강에 목표를 둔다면, 코칭은 개인의 목표 설정과 실행, 성취에 초점을 두고 돕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거나, 성장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이럴 때 코칭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코칭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답을 찾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코칭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국제 코칭 연맹(ICF)과 ICF 인증 코칭의 중요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요즘 코칭이 유행하면서, 체계적인 훈련 없이 '자칭 코치'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코칭 교육과 공인된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코칭 기관 중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바로 국제 코칭 연맹(ICF, International Coaching Federation) 이다.

ICF 인증을 받은 코치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 체계적인 코칭 방법론과 윤리적 기준을 갖춘 전문가이다. 때문에 ICF 코칭을 받으면 단순히 '코칭을 배운다'가 아니라, ICF 인증을 통해 공인된 코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특징은 ▲ 미국에서 최초로 한국어로 ICF 인증 코칭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국어로 전문적인 코칭 교육을 받고, ▲ ICF 인증 코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 일반 코칭 교육에서는 코칭 스킬만 배우지만, GIFT 전인 코칭 전문학교에서는 심리학과 전인코칭을 함께 배울 수 있다 ▲ 강사는 오랜 경험의 탁월한 임상 전문가 리디아전 임상 심리학 박사 및 ICF이증 전문코치와 조셉전 의학박사가 전인적 관점에서 직접 지도하며 "상담과 코칭을 통합한 교육과 훈련"상담과 교육을 통해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전인코치를 배출한다.

참고로 GIFT 전인코칭전문학교에서는 오는 3월 31일(월)과 4월 2일(수) 저녁 7시 30분, Zoom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코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들은 Gift coachinginstitute.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코칭 교육의 한 부분씩을 소개하고자 한다.

drlydiachun@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05
주일2부 예배 : 오전 9:05
주일3부 예배 : 오전 11:05
주일4부(젊은이 예배) : 오후 2:0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 11:00
새 벽 기도 회: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회중: 오전 9:00,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 오전 11:00
E M 예배 :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213) 388-1927 / www.wmcla.com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a-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탐구예배: 오후 6:30
Tel:(310)749-4756
실버치 리저월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오전 8:30
주일2부예배:오전11:30
수 요 예 배: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오전10시오후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213)700-9928 , www.elpist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본당)
새 벽 예 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풍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 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9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빈 컵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바란다. 복 받는 데에는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 남들보다 내가 더 복을 받아서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도 복 복자를 뒤집어서 걸어 놓는다. 복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기를 바라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복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 같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홈리스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이 가진 사람에게 복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보다도 심령이 부유한 자, 곧 마음이 충만한 자가 복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얼마 전까지 커피를 그야말로 탐닉했다. 좋은 커피 마시는 것을 삶의 큰 즐거움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직접 커피를 갈고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좋은 커피콩을 파는 곳을 찾아가기도 했다. 물론 요즘에는 시간과 돈이 아까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내가 내린 커피를 좋아하는 교인들도 꽤 있었다. 그래서 종종 목양실에서 커피를 내려서 교인들과 나눴다. 그럴 때 꼭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런 교인들은 마시던 커피를 빠른 속도로 쏟아버리고 내가 내린 커피를 받는다. 내 컵에 커피가 담겨 있으면 더 맛있는 커피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위에 물을 부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컵이 비어 있다면 물을 붓는 대로 컵에 채워진다. 만약 컵에 붓는 물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보통 물이라면 컵에 물이 채워져 있든 빈 컵이든 별 상관 없다. 하지만 만약 지금 컵에 부으려는 물이 진짜 좋은 생명수라면 내 컵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을 냉큼 버리고 그 생명수를 기다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생명 샘물로 채우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잔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생명 샘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잔이 비워져 있는 것이 낫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한다. 주머니도 채우려고 하고, 집도 채우려고 하고, 경력도 채우려고 하고, 책장도 채우려고 하고, 찬장도 좋은 접시로 채우려고 한다. 공구함도 좋은 공구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한다. 그것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춘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더욱 복될 수 있다.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빈 컵을 주께 올려드리며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한다.

wmclakim@gmail.com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2주년 감사예배에서 김준섭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창립 52주년 감사예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되길"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가 지난 2일(주일) 창립 5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준섭 목사는 "지금까지 52년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며 "우리 어스틴한인장로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산책 비전'을 이루시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강현 목사 사회와 프라미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오전 10시에 시작된 2부 예배는 허윤준 장로가 기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장로회 일동 특송, 배정주 권사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이어 김준섭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행 13:21-22)'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어스틴장로교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김준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선교 찬양제에서 목회자 부부, 역대회장, 칼펙 임원, 그리고 연합회 임원들이 찬양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선교 찬양제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남가주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연합회(회장 수 김 권사) 주최 36주년 선교 찬양제가 16일(주일) 오후 4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이영성 목사)에서 열렸다. 수 김 회장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제32회 선교찬양제에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방선정 부회장과 양희정 교육부장 사회와 유희자 무용소의 난타 및 부채춤으로 시작된 이날 찬양제는 라팔마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크레센타밸리교회, 로스펠리즈교회, LA연합감리교회, 예수동행교회, 드림교회, 윌셔연합감리교회 여성찬양대가 출연하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으며 석기향 권사가 오르간을 연주 했다. 또한 목회자 부부, 역대회장, 칼펙 임원, 그리고 연합회 임원이 폐회특별 찬양을 불렀으며 김용근 고문목사가 통성기도를 인도한 뒤 폐회했다. 한편 이날 찬양제에 앞서 수 김 회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전재홍 목사(온타리오 교회) 대표기도, 김명희 제1 영성부장 성경봉독, 정치영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의 '일어나 벧엘로 올가 갑시다(창 35:1-5)'제목의 설교, 목회자부부 찬양대 봉헌송, 연합회 사역 활동 동영상 소개, 김용근 연합회 고문목사 축도로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오금로 102 (금정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대),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55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00 (우)16899지번 : 죽전동 1312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노해로 50 (우편번호 : 01072) 지번 :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1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 서구 불로로 64 (도로명주소)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7-1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0번길 33
시은소교회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국민일보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길 11
www.eshinchon.org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명환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1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08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95길 83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부평성전 2137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213(산곡동)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0540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19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28647)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33 (사창동)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8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장로교회, 선교 바자회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4월 12일(토) 9시부터 3시까지 본교회에서 비전 챌린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뉴욕청소년센터, 2025 청소년 농구대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2025년 4월 26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아름다운교회(시무 계재광 목사)에서 열린다. 대상은 NY/NJ Youth Group 이다.

▲ 문의: 718-279-1313

뉴욕교협,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1차 준비기도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3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예은교회(김명옥 목사 시무)에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1차 준비기도회를 드린다.

▲ 문의: 718-279-141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 제80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뜻깊은 시간을 나누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 제80회 정기노회

신임 회장 김성훈 목사 · 부회장 김강련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미노회(노회장 오영환 목사)는 3월 11일(화)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김성훈 목사 시무)에서 제80회 정기노회를 열었다. 가미노회는 BC주와 알버타주,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를 포함한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예배는 노회장 오영환 목사(기쁨의 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부노회장 김성훈 목사(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가 '떨리는 복종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빌 2:12-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김준호 목사(캘로나한인장로교회)가 성찬을 인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원으로 회장 김성훈 목사, 부회장 김강련 목사, 서기 정윤달 목사, 부서기 권혁근 목사, 회록서기 주석환 목사, 회계 배세원 목사가 선출됐다. 또한 밴프한인교회 담임목사로 박석민 목사 청빙청원건이 편목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허락되었으며 새잎교회가 노회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잎교회의 김부중 목사및 신동원 목사가 목사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 외 하순두 목사의 노회 이명, 장로 청원등이 통과되었다. 회의는 상비부 보고와 시찰회 보고를 통해 교회의 사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노회 첫날 저녁, 예수생명교회에서 노회원을 대상으로 본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RPUS의 총장이신 이정현 목사의 〈올바른 축도론〉을 듣는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밴쿠버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식사와 선물로 인해 타지역에서 참석한 여러 목사들이 위로받고 많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KAPC 가미노회〉

피종진목사 3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토)	3.1절 기도회
3(월) 저녁	안산 큰기쁨의교회(김승희 목사) 010-3874-5880 연락 김용희 목사
4(화) 오전	구리 성민중앙교회(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 지선협 3 · 1절기념 구국기도회
5(수) 오후	국제신학 수원분교학술원 특강
7(금) 오전	아산 서원교회(송창호 목사) 010-8280-6410 CTS TV 부흥협의회 영성기도성회
8(토)	Blessing Event
9(주) 오후	Good TV Hold a meeting
10(월) 저녁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춘 목사, 여성총재 임은선 목사, 대표회장 김태곤 목사, 여성대표회장 이향원 목사) 청주지역 연합축복부흥성회 충주 미스바금식기도원(서순란 목사, 문동철 목사) 010-7136-7669
11(화) 오전	전국원로장로회 3.1절 기도대회(류성고 장로) 010-5265-1501
13(목) 오전	김포 은빛교회(정상업 목사) 010-4067-1091
14(금)~15(토)	천안 위대한약속교회(윤재민 목사) 010-3980-5991
17(월) 오전	서울한영대학교 주최 :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한영훈 목사) 010-2009-7272
17(월)~21(금)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Asia Region
24(월) 저녁	안산 대부도 엘림수양관(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전국목회자영성수련회
25(화) 오후	국회대로 (사)UN재단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사장 최명숙) 010-4025-0691
27(목) 조찬	C채널TV 목회자협의회, 연락 김용희 목사
27(목) 오전	안산 엘림수양관 주최 : 신열방선교협의회(대표회장 최은숙 목사) 010-7684-0135
27(목) 오후	7,000기도클럽(이사장 권태일 목사,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본부 Building ConferenceEvent
28(금)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종섭) 2025년 정기총회 및 축하공연행사

제245차 해외성회 (245th Overseas Assembly)

31(월) 오전	KAL 인천(8:10)-몽골(10:50)
31(월)	몽골(Mongolia) Ramada by Wyndham Ulaanbaatar City Center Elanbat the Capital of Mongolia
4.1(화)	몽골(Mongolia) 몽골원주민 42교회 연합대부흥성회 주최 : 기독인신문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김영현 목사)
2(수) 오전	몽골(Mongolia) 몽골한인선교교회(손명목 목사)
2(수) 오후	몽골(13시) - 인천(15:10) / 인천 (18:35) - 일본 도쿄 나리타(21:05)
2(수) 저녁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MT)
3(목) 낮	일본(JAPAN) 東京 우에노공원 일본인아외성회(동경 사랑의 교회) 정스데반 선교사, 김태실 선교사
4(금) 저녁	일본(JAPAN) 東京 국제문화교류협회 심령부흥성회 및 제5기 수료식
5(토)	일본(JAPAN) 도쿄 나리타(9:20) - 인천 (11:45)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4(개포동)
www.n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프라미스교회는 50주년 희년 축하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축복의 50년을 넘어 부흥의 50년으로"

프라미스교회, 50주년 희년 축하음악회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는 3월 16일(주일) 오후 4시 50주년 희년 축하음악회를 개최했다. 팬더믹 발발 5년 만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프라미스교회는 '산 자의 땅'에서 누린 벅찬 은혜'를 찬양으로 표현하고자 이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했다.

허연행 목사는 "이번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의 휘날레이다"라며 "'축복의 50년을 넘어 부흥의 50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활의 능력으로 비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바쁜 삶 속에서도 팬데믹 극복의 기쁨과 희년의 감사와 감격을 다양한 장르로 표현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했다.

안성유 집사의 사회로 시작한 음악회는 프라미스 심포니오케스트라, 프라미스 솔리스트 앙상블, 리죠이스 여성콰이어, 프라미스 연합합창단, 에셀국악팀, 뉴저지 에셀키즈 합창단, 프라미스 에셀키즈 합창단 & 유스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와 온 세대가 참여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다. 에셀키즈합창단, 프라미스 한국학교, 유스오케스트라가 펼친 'Worth of It All' '봄의 왈츠' '잠자리 꽁꽁'의 합창과 연주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듣는 이의 마음에 소망을 품게 했다. 프라미스 목회자팀과 찬양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참석자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오 아멘'을 외쳤다. 또한, 허연행 목사의 희망의 속삭임 '마사다 Never Again'의 영상을 상영했다. 이다니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이애실, 알토 이주형이 마지막 곡 '살리라, 다시 살리라'를 부르자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와 앵콜이 이어져 앵콜송으로 '그 날'을 불러주었으며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은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도노반 리처드 주니어 퀸즈보로청장은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프라미스교회는 이번 50주년 희년 축하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앞으로 부흥의 50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확고히 했다.

〈홍현숙 영상취재〉

뉴욕노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KAPC 뉴욕노회, 제96회 정기노회 개최

노회장 정기태 목사, 부노회장 이영상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제96회 정기노회가 3월 11일(화) 오전 10시 새벽별주님교회(정기태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인도 노회장 임영건 목사, 기도 부서기 박병섭 목사, 성경봉독 부회록서기 신동기 목사, 설교 부노회장 정기태 목사, 성찬예식 전노회장 이윤석 목사, 축도 직전 노회장 임병순 목사, 광고 서기 정인수 목사로 진행됐다.

정기태 목사는 "영의 새로운 것은? (로마서 7:1-6)"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으로 인해 맺었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임원 공천을 통해 노회장 정기태 목사(새벽별주님교회), 부노회장 이영상 목사(뉴욕중앙산정현교회), 서기 박병섭 목사(뉴욕선교로교회)와 부서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회록서기 신동기 목사(뉴욕심포니교회)와 부회록서기 허장길 목사(담대한교회), 회계 차상남 장로(퀸즈장로교회)와 부회계 박정봉 장로(퀸즈장로교회) 등을 공천했다.

회무처리를 통해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가 청원한 15인의 부목사 시무를 허락했으며 뉴욕선교로교회(박병섭 목사) 전은호 목사, 주비전교회(이규본 목사) 2인(한우연, 한종영 목사)을 허락했다. 새벽별주님교회(정기태 목사)는 허준 부목사 청빙을 허락했다.

교회이전 청원은 예사랑교회(손한권 목사)와 큰기쁨교회(방정훈 목사)를 허락했으며 장로증원은 부르클린제일교회(이윤석 목사) 장로 1명 증원, 뉴욕심포니교회(신동기 목사) 1인 증원을 허락했다. 주안에교회(임영건 목사)의 이재환 목사 전도목사 파송 청원을 처리했다. 박휘영 목사의 뉴욕성지교회 개척과 노회가입 청원, 예사랑교회 손한권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윤영환 목사 담임목사 청빙을 허락했다. 임원회는 시찰회 조정에 대해 헌의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한인목사회 제53회기 제1차 임·실행위원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했다

"말씀의 갈대상자와 기도의 눈물 역청 준비"

뉴욕한인목사회 제53회기 제1차 임 · 실행위원회

뉴욕한인목사회(회장 한준희 목사)는 3월18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청암교회(차철회 목사 시무)에세 제1차 임·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예배는 박희근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구자범 목사의 기도, 양미림 목사의 성경봉독, 차철회 목사의 설교, 정숙자 목사의 봉헌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의 축도로 이어졌다.

차철회 목사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 (출 2: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준비해 하나님께 맡겼듯이,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씀의 갈대상자와 기도의 눈물 역청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강조했다.

2부 회무는 한준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관호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후 서기 김인식 목사의 회원점명, 회장의 개회선언 후 각 부 보고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 목사회 기여한 분 회원으로 청원 건 (전 회기 정기총회 통과) △ 한국성지 방문 건 (김홍석 목사) △ 시니어 목사 단기선교사 파송 건(김영환 목사) △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시니어 목사 단기선교 파송 안건은 사정상 목회를 중단한 목회자와 은퇴한 시니어 목사들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여 목회의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허락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며, 5개 주 종목은 의논중이다. 제1차 임·실행위원회는 이종명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김호성 목사는 준비한 전도지를 들고 전도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장로교회, 전도 특별세미나 성황리 개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3월16일(주일) 오후 12시30분 전도의 본질을 되새기는 전도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도시선교회(ICM) 대표이자 111 부흥기도운동을 이끄는 김호성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되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전도의 노하우를 배우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호성 목사는 사진을 보여주며 현 시대의 위기와 영적 갈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사회와 정치도 회복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레미아 램피어의 기도 운동을 소개하며 한 평신도의 기도 모임이 뉴욕을 넘어 미국 중부에까지 영향을 미친 대규모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도가 시대를 변화시킨다"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사회가 변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를 복음 전파를 위한 훈련소로 비유하며,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직업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하며,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전도적 삶을 실천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뉴욕 맨해튼에서의 도시 선교 사례와 하버드 및 동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전도 활동 등 국제적 전도 사례를 소개하며, 성도들에게 전도의 필요성과 도전을 심어주었다. 또한, 문화적 접근을 활용한 전도 방법으로 '영화 전도'를 소개했다. 40년간 20억 명 이상이 시청하고, 7억 명 이상에게 복음이 전해진 '예수' 영화를 활용한 전도는 시대가 변화해도 여전히 강력한 선교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QR코드를 활용해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김호성 목사는 전도의 실천 방법으로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미소와 아이컨택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며, 축복의 복음을 전한 후 영화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손을 잡고 기도하며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자"는 다짐을 나누었다. 이어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한 후 김학진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영상취재〉

지난해 콘서트를 마친 라크마 합창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라크마 챔버 코랄 사순절 찬양집회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라크마 쳄버 코랄(음악감독/지휘 윤임상) 사순절 찬양집회가 28일(금) 저녁 7시 남가주 든든한교회(담임 김홍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본 찬양집회는 라크마가 추구하는 중요한 미션중의 하나인 "우리의 예술을 통해 복음을 찬양한다"는 사명으로 매년 전, 후 반기에 각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찬양집회를 갖고 있다.

올 찬양집회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하게 된다.

첫 번째 섹션은 삼위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시편 150편"을 통해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고 이어 두번째 섹션은 본 찬양집회 중심이 되는 " 수난의 현장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수난의 현장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1. 인간 예수님의 번뇌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2. 빌라도 법정에서 심문 받으시는 장면, 그 가운데 아무 대답 없으신 '어린양의 침묵', 3.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까지의 수난의 현장을 '비아 돌로로사(고난의 길)'로 표현하고, 4. '십자가'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표현하며 그 고난의 현장들을 한편의 드라마로 엮어 생생하게 나타내게 된다. '

세 번째 섹션은 김에스더(라크마 부지휘자) 지휘로 '인도와 보호'라는 주제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표현하게 된다. 네 번째 섹션은 다시 윤임상 음악감독 지휘아래 '예수'를 통해 부활을 찬양하며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함으로 2025년 사순절을 지내며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의미 있는 집회로 마련된다.

〈이성자 기자〉

감사한인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예배에서 창립 42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오른쪽 위 원안은 이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영길 원로목사

감사한인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예배

"이삭의 생애를 통해 보는 세 번의 이유식"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예배를 16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감사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의 사회로 이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2부 예배는 허장원 장로 기도,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어 김영길 목사(본교회 원로)가 '성대한 이유식(창 21:5-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영길 목사는 "이유식은 젖을 뗄 때 먹는 음식을 의미하며 이유식에서 식은 밥 식(食)을 쓰는데 본문 제목은 법식(式)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며 "이삭의 생애는 세 번의 이유식이 경험된다. 첫째 청년기의 이유식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다.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에서 이삭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그것이 첫 번째 이유식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중년의 이유식이 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년에 바라는 대로 잘 안될 때가 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버리는 과정이다. 세 번째 노년의 이유식이다. 영·혼·육이 건강해지는 것"이라며 "이삭의 기도는 야곱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화해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삭의 기도는 매일 드려졌을 것이고 그로인해 그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이 되었을 것이며 이삭의 아들들은 화해하게 되었다. 이유식은 매일매일 거행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러야 할 이유식이 많다. 가족 간 원수 되었던 것, 돈이 우선되었던 것 중 맺혀있던 것이 있다면 작정하고 성대한 이유식 갖는다면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예배는 구봉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축도에 이어 창립 42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주님세운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위 타원안은 이날 취임한 신용환 담임목사 부부와 박성규 원로목사 부부

주님세운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박성규 원로목사 추대, 신용한 담임목사 취임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원로목사 추대 및 신용한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6일(주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거행됐다. 박성규 목사는 "멀고 험한 길을 잘 다녀왔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당시 한국의 큰 교회에 청빙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민목회 사역을 정리하고 청빙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시간 속에 있더라도 사역을 능히 감당해 낸다면 내 삶이 마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지켰고 오늘 원로목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신용환 목사는 "귀한 잔치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한다"며 "20년 완주하신 박 목사님을 보면서 7300일 하루 하루, 한주 한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돌보고 말씀 잘 전하고, 건강하고 순전한 담임목사가 되려고 하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주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호 목사(KPCA 서노회 노회장/새한교회)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강진웅 목사(서노회 전 노회장/갈보리믿음교회) 기도에 이어 김인식 목사(KPCA 중경 총회장/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6-9)'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인식 목사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관계는 부자간의 관계처럼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주님세운교회가 20년을 지나면서 사역이 더 뻗어나가 하나님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회장 집례로 열린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손흥수 장로 추대사, 노영호 목사 선포, 권오성 장로 원로목사 추대패 전달, 노회장 공로목사패 전달,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축사 및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타코마 지역 대표회장 위촉패 전달, 이상명 총장(CPU) 축사 및 미주장신대 14대 이사장으로 사역했던 박성규 목사에게 공로패 전달, 박성규 목사 인사가 있었다. 이어열린 3부 담임목사 취임식은 소개, 서약, 선포, 취임패 및 취임축하패, 감사패 전달, 축하영상 소개,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축사 및 권면, 신용환 담임목사 인사, 노용진 목사 가정(남가주동신교회) 축하연주가 있었으며 이날 예배는 정시우 목사(PCUSA 한인교회협의회 전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오렌지한인교회 2025 봄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송병일 목사

오렌지한인교회 2025 봄 부흥회

"하나님을 의식하고 간절히 구하며 주실 상을 고대하자"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 2025 봄 부흥회가 '얼굴의 광채'라는 주제로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송병일 목사(한인기독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정유성 목사의 사회로 16일(주일) 오전 11시 15분에 열린 마지막 날 부흥회는 류동목 장로가 기도했으며 박미 집사가 바이올린 특주를 했다. 이어 송병일 목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히 11: 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같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은 첫째.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다. 둘째,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다. 세 번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상을 고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재림부분에 상 이야기가 나온다.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어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 아픔, 고민과 고통이 풀어지고 녹아질것이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받을 상을 고대하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에 이어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른 뒤 정유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 월례회

남가주감리교원로목사회(원목회) 3월 월례예배 및 고 정지한 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얼바인한인연합감리교회(류성창 목사)에서 열렸다. 권혁순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김웅민 목사가 기도하고 김은영 사모의 지휘와 반주로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회장인 정신관 목사가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승은 목사가 고 정지한 목사를 추모하는 첼로 독주 순서가 있었다. 이날 예배는 정영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식사는 고 정지한 목사 부인 조충자 사모가 제공했다. 한편 4월 원목회 목임은 오는 4월 14일 오전 11시 하나감리교회(강성도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대흥장로교회 설립 48주년 기념부흥회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는 교회설립 48주년 기념부흥회를 '하나님께 사용 받는 사람(고전 15:10)'이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부흥회 일정은 21일(금) 저녁 7시30분, 22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30분, 23일(주일) 오전 8시30분, 11시

▲ 문의: (310)719-2244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희년 감사 부흥성회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진유철 목사) 희년 감사 부흥성회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4일(월) 오후 7시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갖는다.

▲ 문의: (323)913-4499

남가주사랑의교회 2025 새생명축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25 새생명축제를 '내 인상의 하이라이트'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새생명축제의 강사는 최형만 목사(동춘교회 부목사)이며 일정은 21일(금) 저녁 7시30분, 22일(토) 저녁 7시, 23일(주일) 오전 7시5분, 9시5분, 11시5분, 오후 2시이다.

▲ 문의: (714)772-7777

LA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LA비전교회(3130 Wilshire Blvd.#303. LA)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가 23일(주일) 오후 3시에 거행된다. 이날 김대준 목사가 이임하고 고주열 목사가 취임한다.

▲ 문의: (213)386-9191, 291-5072

가스펠교회, 최인혁 목사 초청 찬양예배

남가주 위티어에 위치한 가스펠 교회(담임 김정호 목사)는 오는 4월 6일(주일) 오전 11시 최인혁 목사 초청 찬양 예배를 개최한다. 가스펠교회 주소는 10005 Cole Rd, Whittier, CA 90603이다.

▲ 문의: (657)253-8561

굿네이버스 나눔 토크 콘서트

자기계발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미경 강사의 굿네이버스 나눔토크콘서트가 '더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28일(금) 오후 7시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손창민 목사)와 29일(토) 얼바인온누리교회(담임 박신웅 목사)에서 오후 4시에 열린다. 티켓 가격은 20달러이며, 티켓 판매 수익금은 굿네이버스 US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쉘터에 100% 지원된다.

▲ 티켓 문의: (877) 499-9898, (213)368-2611

김용훈 목사가 샌디에고갈보리교회 상반기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상반기 부흥회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의 고백이 있기를"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상반기 부흥회가 지난 3월 7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9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김도일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호산나성가대가 찬양했으며 박예리 자매가 특송했다. 이어 김용훈 목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고백(시 23: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용훈 목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한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마저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시간들은 쉬는 시간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쉼이 없고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봐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닌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제시만 해주시지 않으시고 함께 가신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고난이 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가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의 끝은 다르다. 우리 삶을 마치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말씀에 이어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른 뒤 김용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복음통일 꿈꾸는 남북한 청년 공동체 '드리머즈'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공동체 됐으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 한국 청년과 북한 이탈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 '드리머즈(공동대표 김연수 지연아)'가 주인공이다. 드리머즈는 김연수(27) 공동대표와 남북한 청년 4명이 통일을 꿈꾸며 지난해 3월 설립했다. 몇 년 전 해외 선교 중 만난 한 탈북 청년과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절감한 게 드리머즈의 시발점이 됐다.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공동대표는 "탈북 청년들의 자살률이 국민 평균의 3배나 된다는 통계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손내밀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드리머즈가 그런 공간이길 소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리머즈는 청년 탈북민의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찬양과 기도회 모임도 진행한다. 이 모임엔 30~40여명의 남북 청년이 참석한다.

통일부의 '북한 이탈 주민 입국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3만4314명이다. 이 중 10~30대가 전체 55% 가까이 차지한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 사선을 넘어온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란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들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김 공동대표는 "고립된 탈북 청년을 발굴해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창립멤버인 탈북민 김일혁(30)씨는 한국교회를 향해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1년 가족 9명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태국 방콕을 거쳐 한국에 왔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사회와 교회가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북한에 억류된 동포를 해방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통일과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문화·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통일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드리머즈를 통해 남북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유·복음 통일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저희가 뿌린 작은 밀알이 반드시 큰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어요. 하루빨리 북한이 해방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주를 복음의 빛으로!'

GOODTV 제주본부 설립 감사예배

제주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위한 'GOODTV 제주본부' 설립 감사예배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동홍교회에서 드려졌다. 예배에는 GOODTV 김명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제주 지역 교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제주본부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명전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2025년 더 많은 지역 시청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제주본부를 설립했다"며 "GOODTV가 제주 지역의 복음화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립 감사예배에서는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원로목사가 '보고 듣는 복'(마 13:16~17)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영상 매체를 통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GOODTV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전 총회장 강연홍 목사, 제주교단 협의회장 박병해 목사, 서귀포기독교협의회장 이정우 목사는 축사를 전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장 양대식 목사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제주본부의 설립을 축하했다.

이날 박창건 제주본부장과 함께할 동역자들도 소개됐다. 신관식 제주본부 이사장, 이상구 사무총장, 고창진 문화국장, 송은섭 선교국장, 김인수 재무국장, 박명일 자문위원장, 정정희 사무간사가 김명전 대표이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창건 제주본부장은 "GOODTV가 제주 교계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다음세대의 밝은 미래, "교사 성품에 달렸다"

'교사의 성품, 더 나은 미래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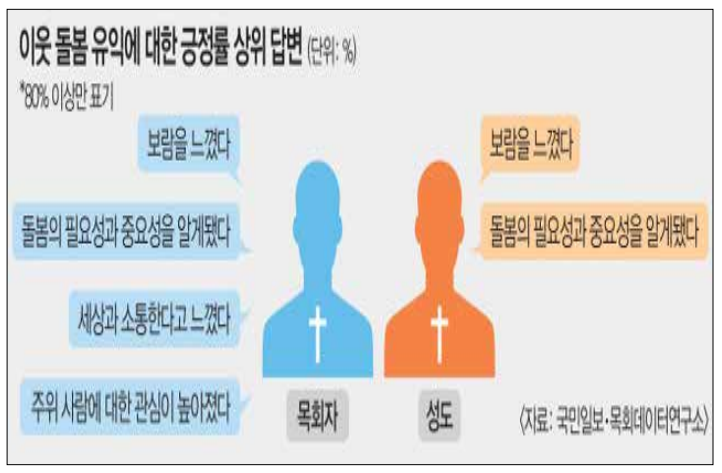
미래세대를 위한 교사 성품 교육 연수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은 15일 '스말로그 교사대학'을 개강했다. 스말로그는 스마트와 아날로그의 합성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통합 수업을 말한다. 미래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교사의 성품, 더 나은 미래세대'를 주제로 진행하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132개 교회의 1500여명 교사가 참여한다. 3년 전 시작한 스말로그 교사대학에 첫해 500여명의 교사가 신청했고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6주 동안 진행하는 강의에는 박성규 총신대 총장을 시작으로, 김준(총신신대원 상담학) 교수, 고상섭(그사랑교회) 목사, 김은미(마음성장학교)대표, 전광(성경적성품훈련전문가 대표) 목사, 서유지(한국부모교육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김종혁 목사는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과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교사의 성품은 사랑 배려 인내 섬김으로 아이들 신앙에 본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셋째 주 토요일 서울영동교회에서 기독교수 로고스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목회자 · 성도 10명 중 8명 "이웃 돌봄은 사명"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해 이웃 돌봐

목회자와 성도 10명 중 8명 이상이 교회의 이웃 돌봄을 신앙적 사명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돌봄에 임하는 교회의 태도가 시혜적이라는 비판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왜 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목회자(84.8%)와 성도(82.7%)는 모두 압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을 선택했다. '교회가 계속 해왔던 사역이므로'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등 다른 답변은 미미했다. 목회자와 성도 대부분이 이웃 돌봄의 이유로 신앙적 동기를 꼽은 것이다.

특히 목회자는 세상과의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이웃 돌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웃 돌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고 느꼈다'는 문항에 목회자의 82.6%가 동의했는데 이는 성도(71.8%) 응답보다 높은 수치다. 또 '주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에도 목회자(80.8%)가 성도(72.4%)보다 더 많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의 경우 이웃 돌봄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82.3%)나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됐다'(81.9%)는 문항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다만 성도 10명 중 2명 이상은 교회가 '돌봄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없이 자기만족으로 돌봄 사역을 한다'(24.9%)거나 '돌봄 대상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돌봄 사역을 한다'(24.6%) '시혜를 베푼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돌봄 사역을 한다'(21.2%)는 의견에 동의했다. 교회의 돌봄이 사역자 중심이거나 일방적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있는 것이다. 목회자 중에는 10~15% 정도만 이들 의견에 동의해 차이가 있었다.

전기연, 22대 회장단 취임 기념 '기독교수 로고스포럼' 개최

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 22대 전기연 회장 취임

전국기독교수연합회(이하 전기연)가 15일 서울영동교회(조상우 목사)에서 '22대 회장단 취임 기념 기독교수 로고스포럼'(사진)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기독 교수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인공지능 인류혁명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 확산과 인재 양성 그리고 캠퍼스 선교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22대 전기연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안종배(한세대 교수)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취임사에서 "인공지능이 몰고 오는 인류혁명으로 인간다움과 영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독 교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식 전달을 넘어 기독교 가치와 윤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손봉호 전기연 초대회장은 "세계와 대한민국의 정국 혼란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윤리적 혼란과 도덕적 기준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기독 교수들이 학문과 신앙을 조화롭게 접목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직한 지도자로 서야 한다"고 전했다.

1988년 창립한 전국기독교수연합회는 전국 대학의 기독교수들이 캠퍼스 복음화와 기독교 가치를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연합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서울영동교회에서 기독교수 로고스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중고품이 희망으로" 움트는 '착한 리사이클링'

이웃 · 선교사 · 장애인 후원

쓰던 물건도 이웃 사랑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 사랑의 리사이클링은 어려운 이들의 삶을 부축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 거룩한빛광성교회(곽승현 목사)엔 '천사가게'가 있다. 2005년 처음 문을 연 중고매장이다. 상점은 교인들이 기증한 의류 신발 생활용품 소형가전 문구류 등을 정상가의 20% 가격으로 되판다. 매장엔 동네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찾아온다. 월평균 매출은 300만원 정도다.

천사가게 운영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다. 나눔이 목적이다.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긴급지원금으로 보낸다.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요청한 물품이 들어오면 판매하지 않고 전달하기도 한다. 매장은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천사가게는 지난해에만 긴급지원금 4600여만원을 40여 가정에 흘려보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사회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구 안수집사는 18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천사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가르침을 실천하는 나눔의 공동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교인들을 돕는 일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엔, 북한에 "한국인 선교사에 대한 즉시 석방 촉구"

"북한의 장기 억류는 명백한 불법행위"

유엔이 10년간 한국인 선교사를 억류한 북한에 대해 임의 구금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자의적 구금은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 당사자의 건강,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한 상태를 말한다.

WGAD는 의견서를 통해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배상권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라"면서 "권리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번 결정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네 가지 사항을 6개월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세 명의 선교사의 가족이 지난해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자의적 구금인지 판단해달라고 올린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다. WGAD가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체포와 구금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 부재하고 불명확한 범죄를 근거로 신념과 의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WGAD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WGAD가 이러한 의견서를 채택한 것은 한국인 선교사에 대한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

mission 선교의 창 (25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PK, MK들에 대한 단상(斷想)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했다. 주의 일을 전임으로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역자들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 저들 두뇌 속에는 늘 여러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다보니 자기 가족 그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쑤다. 그 결과 적지 않는 PK(Pastor Kids)와 MK(Missionary Kids)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여러 상처 속에서 자란다. 이는 불행이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큰 손실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였어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에게는 큰 짐이 된다. 기쁨도 사라지고 얼굴에 그늘이 진다. 자녀교육?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원한 숙제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출산이요,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 양육이다. 그렇다. 자녀만큼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일을 전임으로 하는 사람들일 경우 더욱 문제의식이 크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시127:3)으로 키울 수 있을까?

1. 한인 교회의 보수적인 문화

한인교회는 서구 기독교 문화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다. 목회자나 선교사일 경우 기대하는 도덕 수치가 높고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만일 어느 목회자가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여행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뜨면 성도들 중 시험들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도덕과 헌신도 면에서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예리하다. 오늘날 만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선교사라면 어떤 유형일까? 고난을 몸소 체휼하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A 선교사는 문명이 닿지 않는 오지(奧地)로 가 원주민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며 사역하다 말라리아 병에 걸려 죽었다. 그는 자기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죽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삶은 고금을 막론하고 숭고하다. 이는 시, 공간을 초월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덕목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사역 패턴 만이 최고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꼭 죽는 것만이 능사인가? 죽을 각오로 하되 죽지 않고 사역하는 것 또한 고귀한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선교현장에는 옛 사역적 방식과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의 일은 마땅히 전심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존재적 기쁨 없이 행위적 업적 위주의 사역은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부모의 사역이란 미명하에 가정이 희생되고 PK와 MK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땅한 도리와 책임 없이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가?

2.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 속의 실패 사례

엘리는 제사장이었다. 그는 어린 사무엘을 맡아 하나님의 대선지자로서 육성시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자기 자녀교육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패역한 죄로 말미암아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삼상 2:31-34).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가문 전체가 망하게 되었고 나아가 국가에까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삼상7:5, 삼상12:23)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국부(國父)격이었다. 그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정시대가 도래하도록 역할을 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삼상3:19) 크게 쓰임을 받은 신실한 주의 종이었다. 이렇게 신앙, 인품, 사역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해 마지않던 그에게도 자녀들 양육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무를 맡겼는데 그들의 행보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삼상8:1-5). 다윗은 어떠한가?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중 왕이었다. 그는 9명의 부인과 후궁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자녀수만 19명이었다. 하지만 그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자였다. 다윗 왕가의 골육상잔은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형제인 누이 다말을 범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3남인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역모를 했다(삼하13-18장). 압살롬에 이어서 연로한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또 다른 반정사건이 있었다. 바로 4남인 아도니야의 반역 사건이다(왕상 1-3장). 이스라엘을 대표한 제사장, 사사겸 선지자, 왕들이 당대에 자기 치적은 대단했지만 자녀 양육에는 실패한 셈이다.

3. 사역자 자녀들의 성장 환경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란다. 그 상처는 어릴 때일수록 충격이 크다. 상처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는가? 홈즈와 레이(Holmes-Rahe)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상위 12가지 중 7가지가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인즉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부모의 생각, 감정, 행동, 언어 등이 자녀의 정서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가정보다 사역자 가정에서 더욱 심하다. 한국에서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 때 조사된 통계가 있다. 이때 PK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첫째는 저들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높고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43.3%였다. 둘째는 물질적인 곤핍함이 33.6%였다. 셋째는 부모의 지나친 요구가 16.2%였다. 기타 6.9% 순이다. 일리가 있는 통계 수치이다. PK 와 MK들이 방황한 주된 이유는 주로 부모 그중에서도 77.1%.가 아버지 때문이라 한다. 최악의 경우는 부모가 사역적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투사할 때이다. 이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상은 가정소홀, 무관심, 고집과 독선, 이중적 모습, 보수적이고 고지식함, 무미건조, 명예욕 등이었다.

4. PK & MK를 향한 건설적 대책

먼저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희생을 앞세우는 영웅적인 사역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델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들도 사역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나 선교사가 저들을 향해 부단한 관심, 사랑, 나눔, 지원을 해야 한다. 나아가 교회에서 MK, PK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MK들을 미전도 종족처럼 입양해 키울 필요가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다. 이제는 농사를 교육으로 바꾸어 지금 시대는 "교육천하지대본"이라 해야 한다. 즉, 교육은 천하의 큰 근본이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는 자녀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다. 둘째는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창출해야 한다. 셋째는 자녀들에 대한 꾸중보다 격려하며 긍정적 사고(思考)로 대해야 한다. 넷째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는 부모들이 언행에서 이중성을 지양하고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며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

맺음 말

전 세계 한인 목회자, 선교사, 신학교 교수, NGO와 선교단체장들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나 될까? 부부 포함 어림잡아 30만 명 전후로 추산하다. 이들 자녀들 PK와 MK 를 합친 수는 약 10만 명 전후가 아닐까 싶다. 저들 2세대들은 비록 자라온 환경이 척박하고 고난이 많았다 할지라도 1세대 부모들의 육체적, 생활적, 사역적 DNA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들은 교회와 선교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전략자산들이다. 앞으로 1세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이 유업을 이를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PK와 MK들이다. 헌데 장차 차세대를 이끌 청소년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가? 바다의 배는 7/10이 물속에 잠겨있듯 저들 중 절대다수가 부모가 걸었던 사역적 길을 거부하며 세상의 길로 나가고 있다. 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가? 우리는 보았다. 성경 속의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들이 당대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 양육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사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즐비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임 사역자들이 사역적 부흥을 위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자녀교육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한다. 교육백년지대계(教育百年之大計)이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다 죽고 돌무덤만 남아 있는 것을 본다. 왜 그러한가? 당대 수평적인 선교만 하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수직 선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부모와 교회들이 PK와 MK 들 나아가 모든 자녀세대를 선교적 시각으로 저들을 품어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마귀는 사역자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자녀를 친다.
자녀는 사역의 최고 협력자이면서도 자칫 방해자가 될 수 있다.
사역자는 목회나 선교를 하듯 자녀들에게 최소한 부모 된 도리를 해야 한다.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8강 요나단, 다윗 (2-2) (사무엘상 21장-사무엘하 4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계속되는 다윗의 도망자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윗뿐 아니라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무엘은,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가장 큰 쓰임을 받고 그가 온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란 광야 마온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심히 부하고 미련한 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 10명을 보내며 양식을 구합니다(삼상 25:2-9). 다윗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그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삼상 25:15). 그런데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 25:10,11)라고 합니다. 이미 다윗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블레셋도 모압도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현재 다윗은 도망자이고 자신은 심히 부한 자이므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때 세상의 힘과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이 일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합니다(삼상 25:13,22).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종들을 보냈지만 결국 아들을 보낼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자 멸해버리시는 모양입니다(마 21:33-41).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당연히 진멸되어야 마땅한 나발의 집과 다윗 사이에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모든 이야기를 종을 통해 듣고서 급히 음식을 가지고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가서(삼상 25:14-20) 다윗을 만나 엎드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삼상 25:28)라고 간구합니다(삼상 25:23-31). 이때 아비가일은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삼상 25:28,29)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체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케 하시고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위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준 사건 사이에 등장하는 이 나발은 세상에서는 심히 부한 자이지만 오실 메시야를 예표하는 다윗을 영접하지 못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습니다(삼상 25:38). 또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의 아내였지만 후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 청혼을 하자 나발이 죽었으므로 그 심히 많은 재산이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놓고 아직은 왕도 아니고 현실적인 미래의 보장도 없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삼상 25:39-42)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계속되는 '사울의 다윗 추격전'입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이 있는 곳을 듣고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진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그곳에 들어갑니다(삼상 26:1-7). 이때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로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삼상 26:9)라고 하고서 또한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삼상 26:10)고 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윗도 사울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빨리 자신의 도망자 처지를 끝내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법대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 자체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과의 거리가 멀어지자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한 벼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삼상 26:18-20). 얼마 전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삼상 26:21)고 하고 다시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삼상 26:25)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 쫓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아직 '사울의 다윗 추격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서로 지쳐갈 무렵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삼상 27:1).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는 다윗을 기뻐하여 다윗에게 땅도 주어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삼상 27:12)고도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의 백성들 (눅 19:30-38) 찬 249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무리들은 그를 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이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고백이며,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나 며칠 후, 같은 무리들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 비난하며 죽이라고 외쳤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백과 죄 안에서 하는 말은 다르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와 왕을 알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화 믿는 자들의 삶 (눅 19:39-44) 찬 208장

예루살렘이 원수들로 인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야 한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며,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야 한다. 백성들에게는 장차 일어날 일이 감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다.

수 영원한 세상 (눅 20:34-38) 찬 247장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길이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곳이다.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살아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눈을 뜨고 말씀을 통해 오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았으니,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목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눅 20:45-47) 찬 502장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영원을 보지 못하며, 자신을 주인 삼아 높아지려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안에서 죄를 누리며 산다. 외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만 존재하는 삶을 산다.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되고 스스로를 섬긴다. 그들은 심판주를 보지 못하고, 장차 다가올 심판과 영원한 삶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 영적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날을 피할 수 없다.

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 (눅 21:5-13) 찬 38장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도 결국 무너질 것이며, 그때 여러 징조가 나타난다. 거짓 메시야가 등장하고, 전쟁과 소요, 지진과 기근, 전염병과 두려운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을 받는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보이시며,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고 성장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과 사망, 재난과 전쟁이 없는 곳이다.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만 참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

토 하나님 나라의 징조 (눅 21:29-36) 찬 210장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듯이,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주목해야 한다. 육신에 빠지면 방탕함과 염려로 인해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징조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읽고 준비해야 한다.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와 선교를 위한 인공지능 (13)

제임스 구 목사
(그레이스비전스쿨 대표)

문서 작성용 AI 도구(AI TOOLS FOR WRITTEN CONTENT)의 활용 (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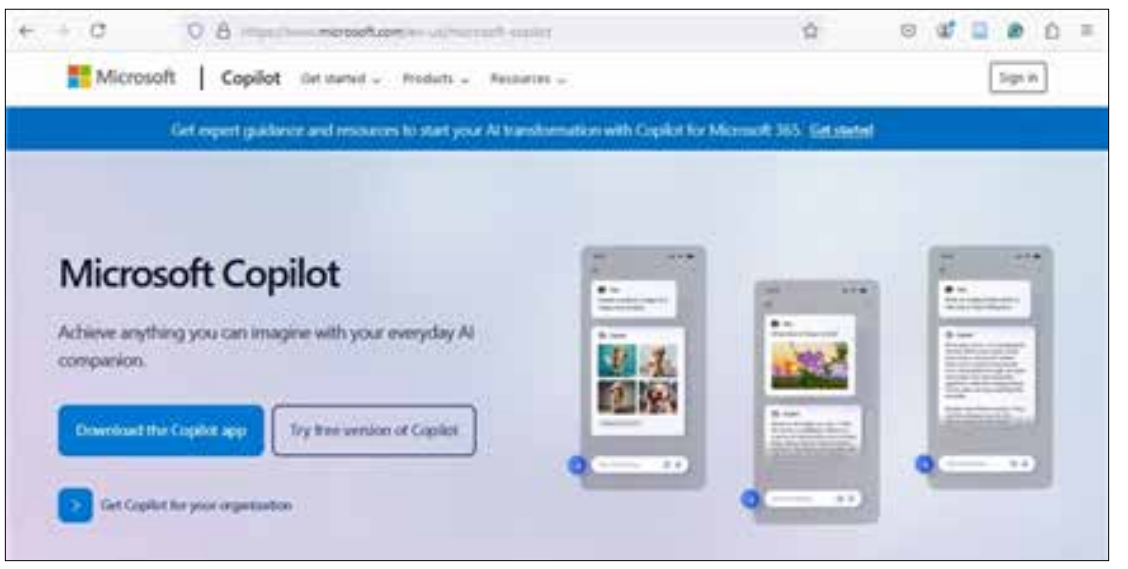


Figure.Microsoft Copilot Website

문서 작성용 AI 도구의 하나로 Microsoft 사의 Copilot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Copilot은 사용자의 작업을 보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AI 도구이다. 특별히 Microsoft 365 앱과 연동하여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등과 같은 앱을 통해서 사용자의 창의적 작업,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이메일 관리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 자동 보고서 요약,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 이메일 내용을 제안하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

ChatGPT와 비교해 볼때 Copilot은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Word, Excel, PowerPoint, Teams, Outlook 등의 Microsoft 365 앱과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동할 수 있어서 Microsoft Office 사용자들이 별도의 학습 없이 친숙한 인터페이스에서 효율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런 이유로 엑셀의 복잡한 데이터 정리와 분석하여 트렌드를 분석하고 적절한 시각 자료를 생성해 주거나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따라서 Copilot 은 업무 생산성을 위한 AI 도우미이며 Microsoft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일정, 문서, 대화 등 Microsoft Graph 데이터에 접근하여 더욱 개인화되고 정확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차원의 데이터 접근성은 사용자의 문서, 이메일, 일정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응답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 중심 설계로 기업 내 사용자들 간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에 적합하다. 이러한 공유기능은 Microsoft Teams에서 회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요 결정을 정리하고 후속 작업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팀원 간의 협업을 향상시키게 해 준다. 이러한 지원은 클라우드를 기반한 작업을 통해서 실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Microsoft의 보안 표준과 규정을 준수함으로 엔터프라이즈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해 줌으로 민감한 정보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 환경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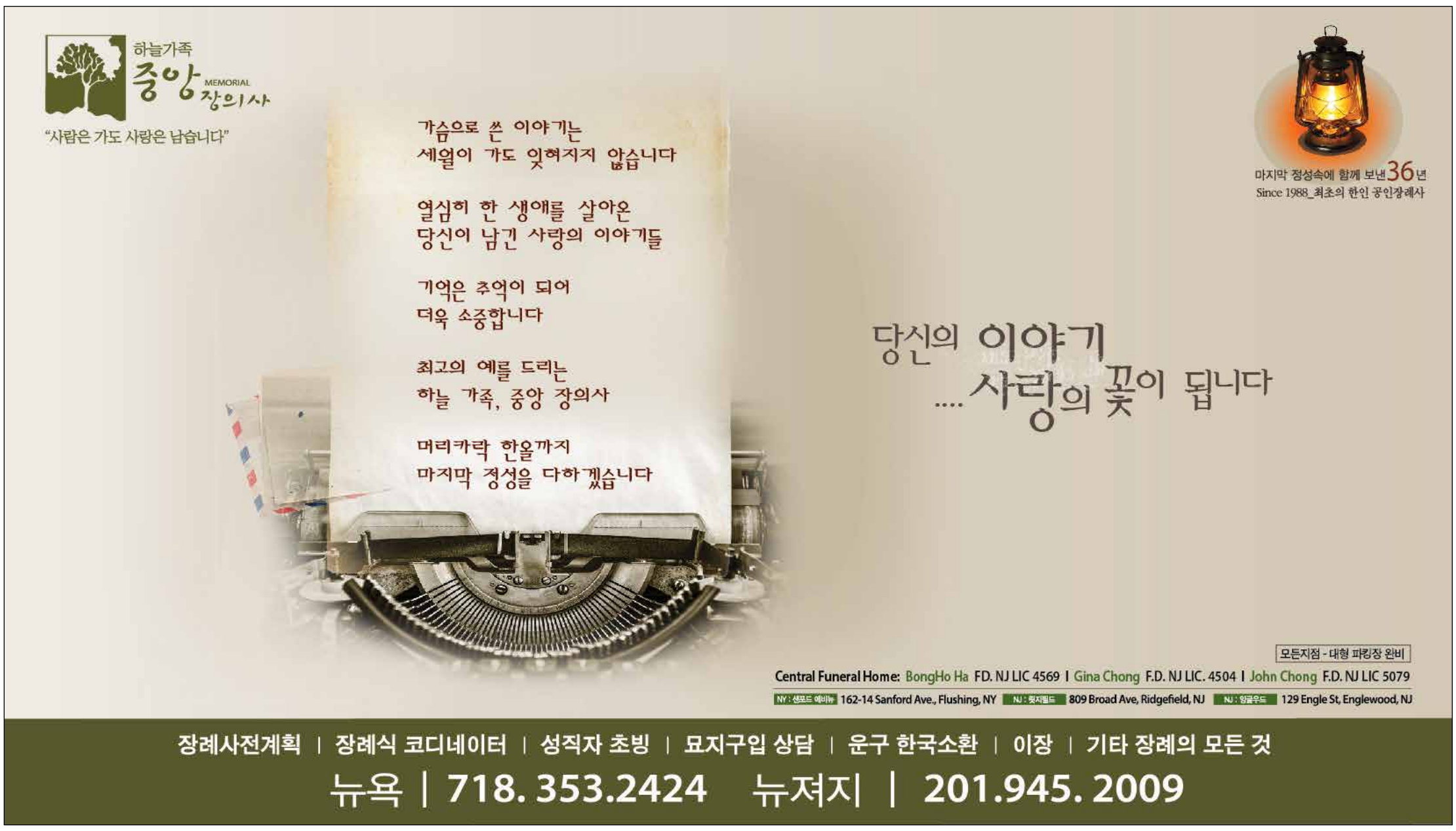
장점에 비해 Microsoft Copilot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Copilot이 생산성과 Microsoft 앱에 특화된 AI 도구이기 때문에 ChatGPT와 같은 범용 AI 도구에 비해 사용환경이 제한적이며 다른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므로 호환성이 부족하다.

또한, Copilot은 Microsoft 365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접근이 어렵고 사용에 있어서 다소 덜 유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이와 함께 Microsoft의 고급 기능들과 Copilot의 통합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일정 수준의 Microsoft 365 도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Microsoft Office 사용자에게는 익숙할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Microsoft Copilot은 Microsoft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더 높은 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AI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dr.jameskoo@yahoo.com



가정선교

100.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질서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 받았지만, 질서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문제에서 제일 큰 싸움은 여성의 지위입니다. 요사이 남녀평등의 시대를 넘어서 여성상위시대가 되었고, 여성존엄(Royalty)시대까지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인권운동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싸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분명히 동등합니다. 그러나 거기엔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있어서 첫째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느 부분이며, 어느 원리이며, 어떤 요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 창조의 문제를 1장과는 달리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노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간 창조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몇가지 중요한 사건들로 연결시켜 놔서, 쭉 훑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징검 다리를 뛰듯이 꼭 건너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언제나 빠집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는 18절에서 21절로 넘어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19절, 20절 두절은 놀랍게도 동물의 이름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19-20절을 보면,"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한 후,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와 20절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를 보면 그 끝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지은 것이 하와가 아니라 각종 짐승이었습니다. 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지 않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단 말인가? 성경적 해답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그 당시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은 세상이었고, 오염도 없고, 부패도 없고, 악한 것이나, 해된 것이 없는 때였습니다. 지금 사람이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때는 혹시 모든 생물과 생물이 같이 산다고 해도 같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에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속성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 후렴같이 나오는 말씀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두기로 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왔더니, 척척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배필로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지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와 보였더니, 2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본 그 어떤 아름다운 생물들, 그 어떤 하나님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동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본 아담이 드디어 그의 반려자, 그의 배필인 여자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여권신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본 어떤 것도 나와 구별되는 하층에 있는 일반생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자를 보자 나와 똑같은 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지위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떠한 하급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동등한 지위로 지음받았다는 데에는 일고의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가정의 구성상, 그 지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상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붉은 글씨" 만 주의 말씀?

〈2면에서 계속〉

사도들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예: 롬 14:17; 고전 4:20; 갈 5:21; 히 12:28; 약 2:5; 벧후 1:11; 계 1:16), 회개의 필요성(예: 롬 2:4; 고후 7:10; 히 6:1; 벧후 3:9),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예: 롬 1:17; 갈 2:16; 엡 2:8-9),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예: 갈 2:10; 약 2:14-16) 등에 대해 썼다.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신 주제를 신약은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킨다.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신약의 연관성을 분별하는 것 외에,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식하는 데에는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첫째, 우리는 특정한 오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때때로 예수님을 사도들과, 예수님을 바울과, 예수님을 초대 교회의 발전과 거리를 두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대중적인 수준에서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나머지 본문보다 신약의 "붉은 글자"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분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대립시키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았다. 또한, 요한은 마태의 복음을 참고한다.

둘째, 신약의 통일성은 우리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대해야 한다. 복음서 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서신서를 살펴야 한다. 신약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신약의 어떤 책을 읽든 신약 전체가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길을 걷는다.

by Daniel Stevens, TGC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케이 종족

▲ 인구
약 85,000명

▲ 종교
가톨릭 49%, 이슬람교 31%, 민속 종교 2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케이 제도의 작은 섬에 거주한다. 15세기 이슬람교 전파 이후 네덜란드 통치로 기독교가 전해졌다. 주로 낚시로 생계를 이어가며 농사도 짓는다. 죽은 자의 영혼을 믿고 그들을 숭배한다. 불행한 사고로 죽은 자의 영혼을 특히 두려워한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다.

▲ 기도제목
1.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케이어로 번역되도록
2. 케이 종족 사람들을 사로잡은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3. 케이 종족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헌츠빌 영락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3대 목사님께서 20년간 은혜롭게 시무하신후 주님의 축복으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바 제4대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 합니다

자격요건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목사 안수 후 Full-time으로 목회경험이 5년(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 미국에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이중언어(한/영) 설교 및 소통 가능하신 분
* 목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씩)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목사 안수 증명서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최소 2통(목회자가 직접 이메일로 제출)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한국어/영어 설교 2회분씩)(동영상 링크)
*신앙 고백서
*목회 철학
*목회 계획서
[모든 서류는 공지된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만 접수됩니다.
제출된 서류/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및 통보
서류접수는 2025년 4월 30일 오후 6시 까지 이며 1차 통보는 10일 후인
2025년 5월 10일까지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니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독립된 건물로써 자체 성전과 안락한 친교실, 주일학교 교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불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untsville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
Email: wellregina@hotmail.com
Address: 7904 Whitesburg Drive, Huntsville AL, 35802, USA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 영어: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새봄을 노래한다

류응렬 목사
(와싱톤중앙장로교회)

긴 겨울 얼어붙은 땅에서
파릇한 새싹을 틔우는 것은
봄빛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입니다
사계절은 주님이 보내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절망의 늪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밝은 내일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길가에 하찮은 풀포기 하나에도
자연의 신비를 발견하듯 감탄하는 것은
당신의 손길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하루의 삶이 지나고 어둠이 내릴 때
여전히 빛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더 깊이 다가오시는 당신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언젠가 인생의 황혼이 내릴 때
하늘 향해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죽음 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의미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먼 나라는 어디일까?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먼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지리적인 의미의 먼 나라일까? 그러면 지구의 끝, 아니면 바다의 끝에 있는 어떤 섬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다른 공간이 아니리라는 생각이 든다. 누구든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곳이면 그곳은 어디나 '먼 나라'가 아닐까? 그 '먼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역에서 한 발짝 벗어난 곳이며, 아버지의 뜻에서 빗나간 행동을 하는 곳이 바로 '먼 나라'가 될 것이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에도 그 자신의 어떤 공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의 영혼은 '먼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다.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뜻 없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 사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눅 15:13)

이 '먼 나라'는 나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도 그 자신은 '먼 나라'에 살고 있을 수 있다. 교회당에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에도 그 자신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먼 나라'에 가 있을 수 있

람의 마음은 '먼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다. 가난한 이웃이 옆에 있음에도 외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먼 나라'에 가 있을 수 있다.

'먼 나라'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겠다고 잘못된 자유

를 요구할 때 시작된다. '먼 나라'는 자신의 인생만을 행복해지려고 기회를 엿볼 때 시작된다. '먼 나라'는 육신의 안일과 육체의 정욕을 마음속에 품을 때 시작된다. '먼 나라'는 이생의 자랑과 허영

심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 시작된다. '먼 나라'는 끊임없는 분노, 과격한 혈기, 터무니없는 미움, 끝없는 원망, 어처구니없는 불평이 생길 때 시작된다.

자주 자신의 현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처한 삶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혹여 나는 탕자처럼 '먼 나라'에 가 있지 아니한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음란한 여자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세관에서 세금을 받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먼 나라'에서 돈만 세고 있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먼 나라'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지금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말한 탕자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게 하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머뭇거리지 말자. 지금 바로 일어서자. 그리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자.

베드로 진서 41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우리의 아버지들

제목이 히안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복수형으로 우리의 아버지들 했으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하고 함께 붙였어야 마땅한데. 그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들 보다는 우리의 선조들 하면 더 멋질텐데(?). 그러나 인간의 정을 끌어당기면서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

어느 새벽기도회 때 담임목사님이 설교 중 자신이 청소년 때 가장 싫어한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새벽기도회를 다녀오신 아버님이 자녀들을 깨우시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 찬송을 부르셨단다. 이 찬송은 5 절로 이루어졌는데 예배에 정성이 없다고 그 찬송을 세 번이나 부르시고 성경을 말씀하셨다. 결국 15절을 불렀으니 자다가 깨어난 자녀들이 뜻도 모른 채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이 났겠는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가 생각났다. 나 역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얼마나 반항도 하고 속으로 쫑알거렸는지. 그러다 야단도 맞았지만. 그 목사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목사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모두 자녀를 그렇게 신앙으로 기르고 어리지만 믿음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revpeterk@hotmail.com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